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실적 개선 소식에 동반 상승 중

삼성, 컨콜에서 "HBM 매출 50% 넘게 상승....SK하이닉스, 강력한 120일선 지지 받아

기자명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4.07.31 14:25 댓글 0

삼성전자가 5세대 HBM(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 양산을 3분기부터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중이다.

31일 삼성전자 주가는 HBM 매출이 50%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오후 2시 2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7% 가량 오르고 있다.

이 시간 현재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850억원, 삼성전자는 36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으나 기관이 두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주가는 120일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콘퍼런스콜을 통해 "2분기 메모리 시장은 생성형 AI 수요 강세에 힘입어 업황 강세가 지속됐다"며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50% 중반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하반기에도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HBM3E 판매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